

# 수입콩나물콩 국정검사체계로 전환

조순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종자검정실장

콩나물콩 발아율 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의회를 거쳐 수입 콩나물콩 발아율 검사체계를 국정검사로 전환하기로 결정되어 2005년도부터 농관원 시험연구소가 담당수행하고 있다.

## 1. 추진배경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정부(정부대행기관)가 수입하는 농산물의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이라 한다)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수입대행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품질이 우수한 외자를 구매한다는 목적으로 2000년부터 국영무역으로 수입하는 콩나물콩에 대한 발아율 검사를 민간 검정업체에 위

탁검사해 왔었음.

○ 이와 같은 위탁검사과정에서 민간검정업체의 발아율 검사자격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콩나물콩 발아율 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의회를 거쳐 수입 콩나물콩 발아율 검사체계를 국정검사로 전환하기로 결정되어 2005년도부터 농관원 시험연구소가 담당수행하고 있음.

## 2. 검사체계

가. 검사체계의 변경내용

### 종 전

- 검사기관 : 민간검정업체(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수입업체의 지정업체)
- 검사방법 : 콩나물공장에서 ‘실재배방식’에 의한 발아검사
- 발아규격 : 콩나물 크기 7cm 이상 성장입수비율 85% 이상 합격



### 개 선

-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 검사방법 : 종자검정실에서 ‘발아기 시험’에 의한 발아검사
- 발아규격 : 5cm 이상 성장 입수비율 검정(업체요구 일부 반영)

나. 현행 검사관리 체계

○ 부산, 평택항 등 항구지 관할 농관원 해당 출장소에서 수입콩나물콩 검사를 위하여 20톤들이 컨테이너 당 1점씩 시료를 채취한 후 시료의 일부는 발아율 검사용 시료로 시험연구소에 송부하고 나머지 시료에 대해서는 해당 출장소가 직접 품위, 중량, 수분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 시험연구소는 항구지 출장소에서 송부한 시료에 대해 발아율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검사결과를 해당 출장소에 통보

○ 따라서 수입검사업무 해당 출장소는 당해 시료에 대한 품질, 발아율 등 종합적인 검사결과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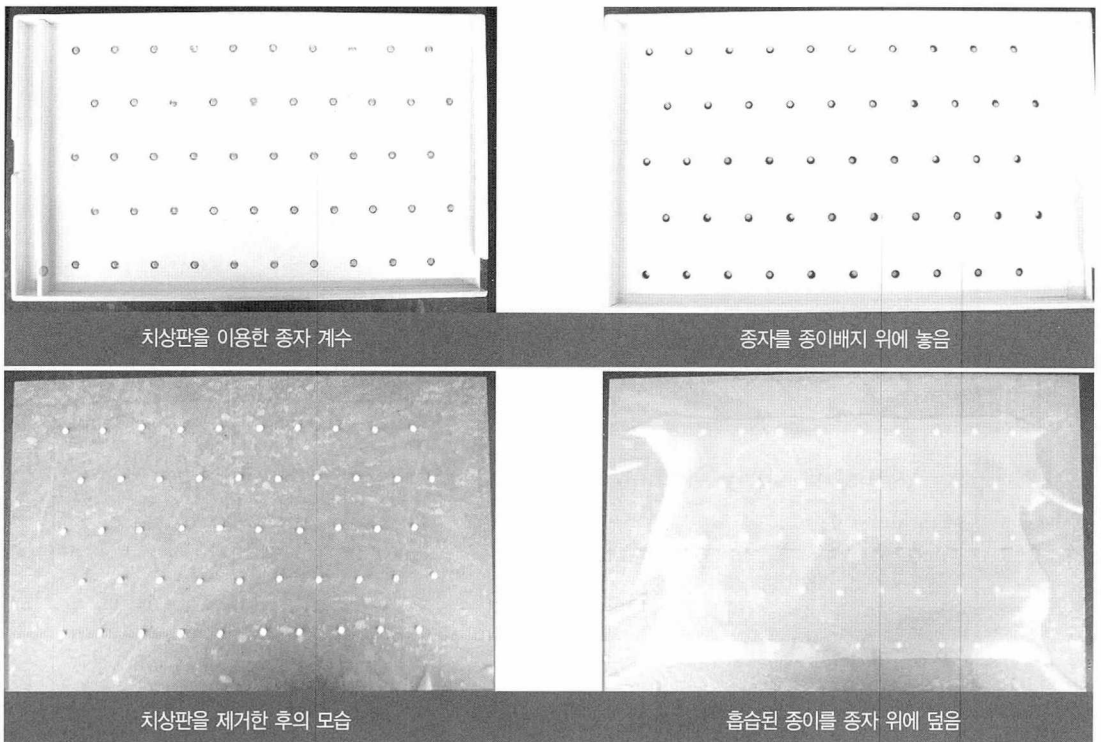
3. 발아율 검사실적

연도	시료점수	검사점수(발아율)		비고
		85% 이상	85% 미만	
2005	504	493	11	
2006	841	759	82	
2007.8월	625	538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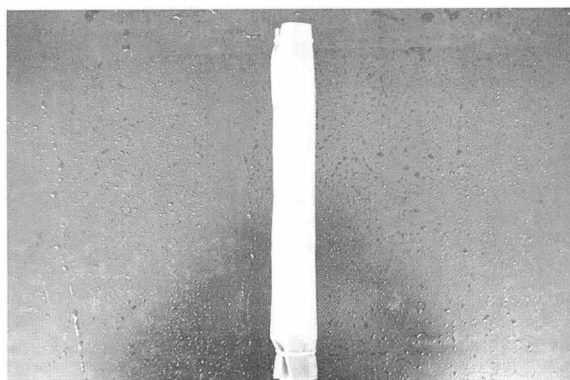
주) 시험연구소 연도별 검사실적 자료임

4. 발아율 검사과정

가. 콩나물콩 치상 및 생육과정



## 포커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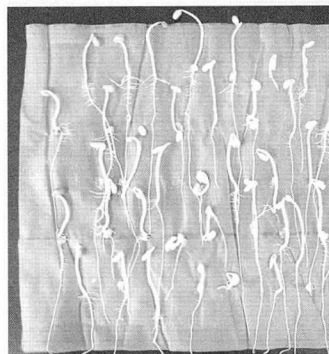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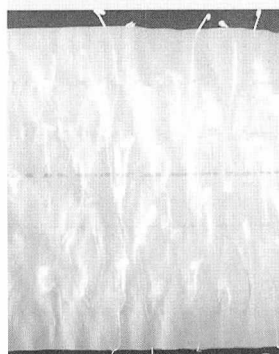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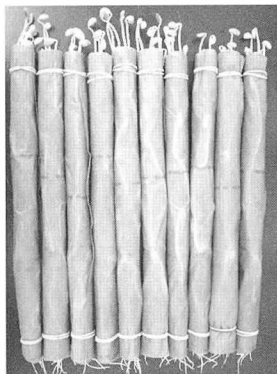


종자가 빠지지 않도록 느슨하게 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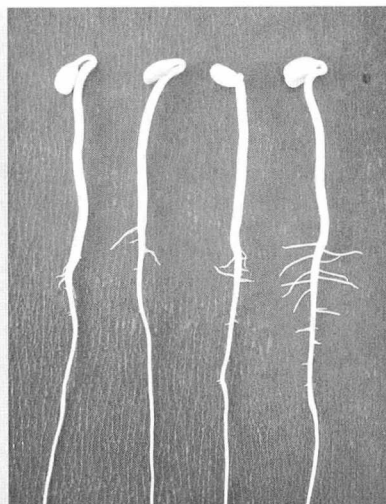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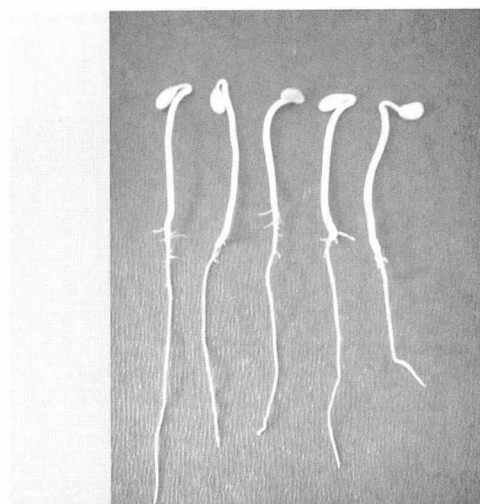


발아시험기 내 생육 모습

### 나. 발아묘 평가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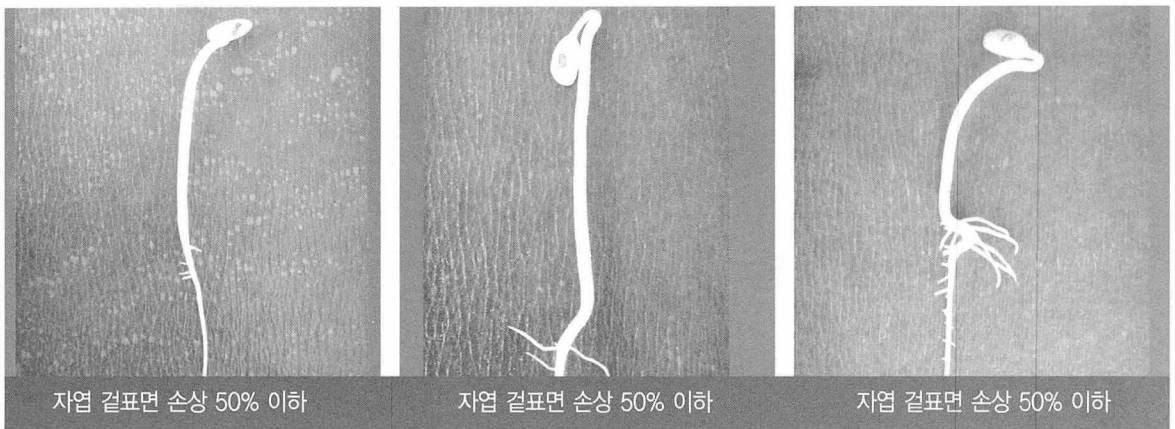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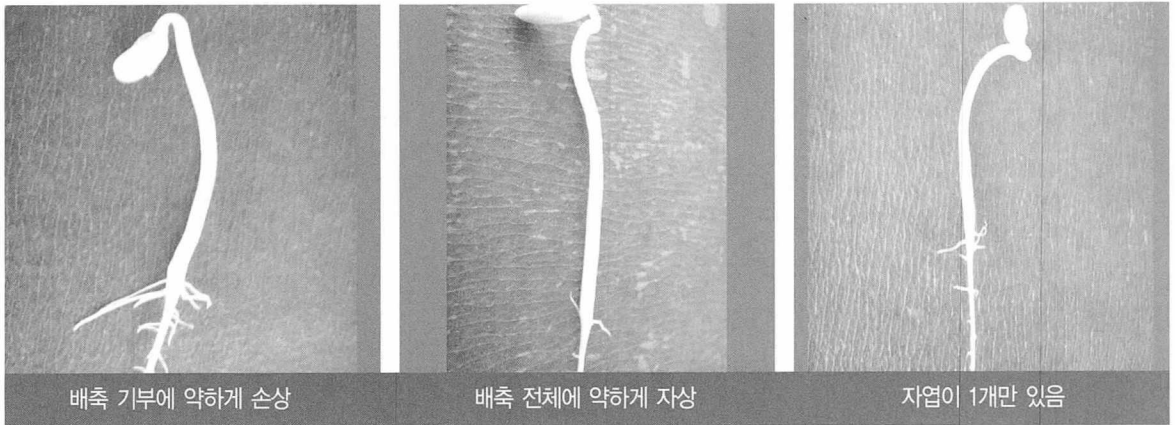


### ① 정상묘의 몇 가지 유형(발아율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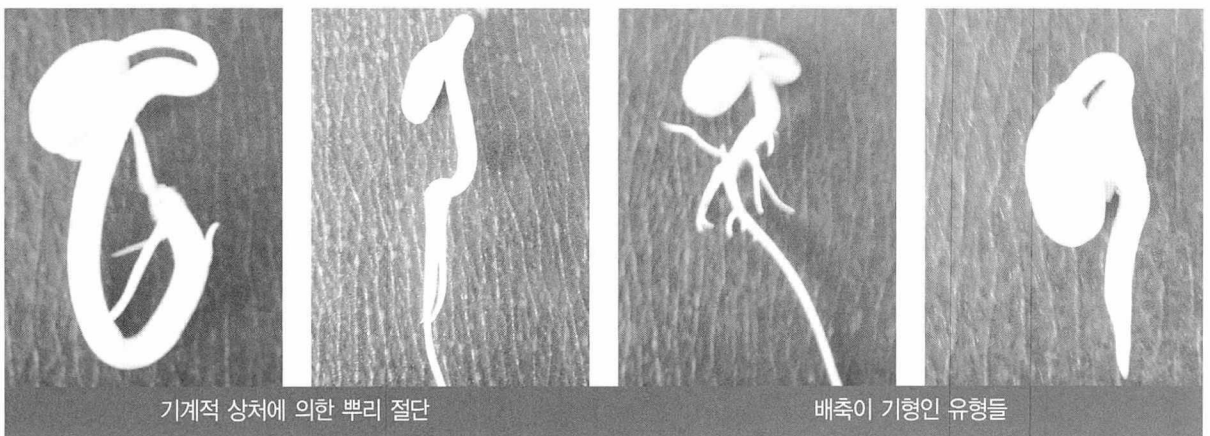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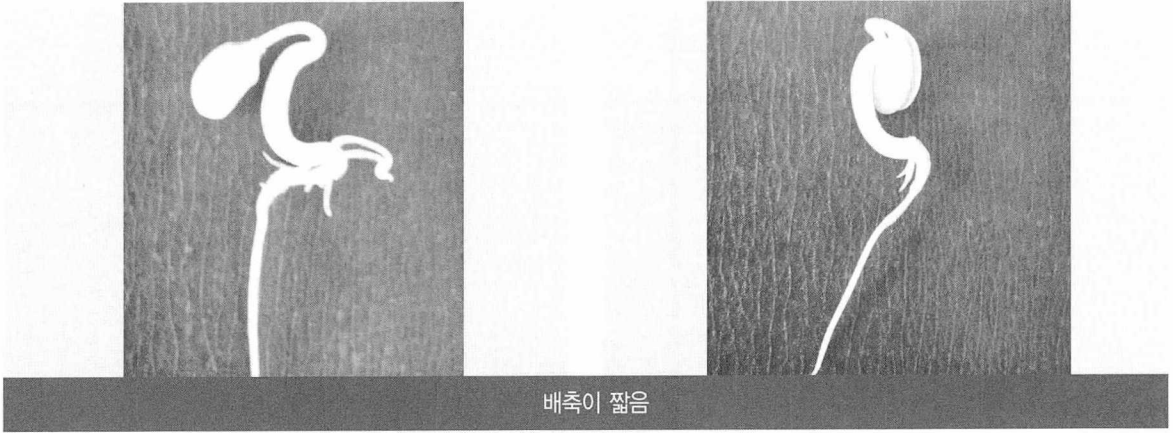
정상묘

② 경결함묘의 몇 가지 유형(밭아울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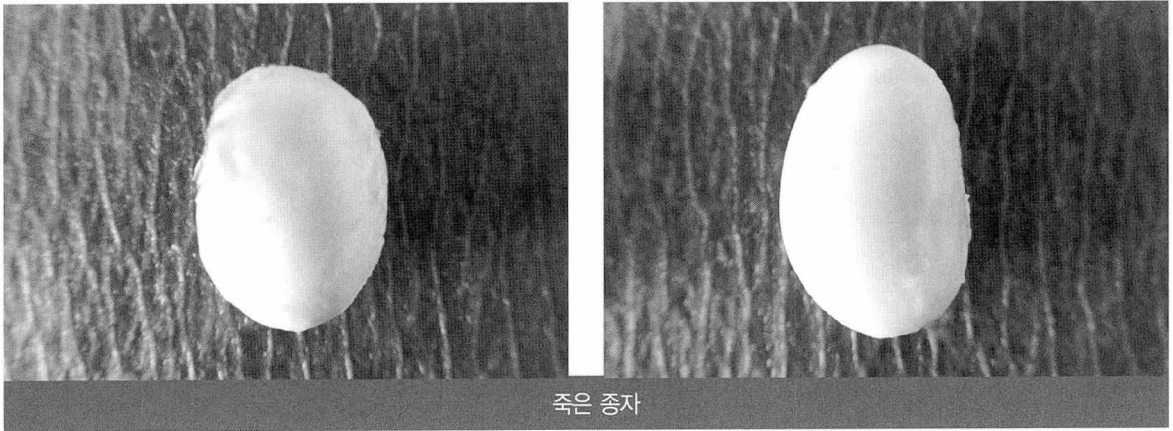


③ 비정상묘의 몇 가지 유형들(밭아울에서 제외)





④ 죽은 종자의 몇 가지 유형(발아율에서 제외)



5. 향후 추진계획

○ 콩과 콩나물콩에 대한 발아검정방법은 실험실에서 유묘단계까지 생육시켜 발아율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콩은 알맞은 토양조건에서 장차 완전한 식물로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콩나물콩은 유묘단계에서 식용으로 시중·유통가능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차이가 있다.

○ 따라서 현행 발아검정 규정 만으로는 정확한 콩나물콩 품질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중에 유통중인 콩나물콩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2008년까지 콩나물콩에 대한 발아묘 평가방법을 정립하고자 실험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콩